

전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韓 농업 미래 선도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접목
핵심자원 보유 최적의 조건 갖춰
나주, 장흥, 순천·곡성 3대 축 삼아

전남도가 지·산·학·연 협력의 글로벌 대표 모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식품소재, 천연물, 미생물 3대 핵심 분야가 선정돼 농업을 기술집약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킬 발판을 마련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은 지난 1월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기존 단위사업 중심이 아닌 지방 자율 전략 설계 방식으로 전환해 이뤄졌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축산물과 미생물, 천연물 같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IT)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핵심산업이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 2000억 달러에서 2031년 3조 9천억 달러로 3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연평균 7% 가깝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



전남도청.

/전남도

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소재·천연물·미생물 등 핵심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농지 면적(전국의 18.2%), 농업 생산량(19.0%), 친환경인증 면적(50.3%), 아열대작물(59.0%)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풍부하고 다변화된 생물 자원과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혁신적 연구개발 역량을 인정받았다.

속면효과가 뛰어난 흑하랑 상추로

만든 건강차, 눈 피로 개선에 좋은 차즈기 제품, 유자 부산물에서 추출한 화장품 원료 등이 대표적(우수) 사례다.

전남도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토대로 전남형 그린바이오 혁신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나주는 식품소재, 장흥은 천연물, 순천·곡성은 미생물을 3대 축으로 삼아 그린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육성지구 지정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인센티브 혜택이 집중된다. 바이오 파운드리, 소재 산업화시설 등 국비 인

프라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지구 입주기업은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식품기능성 평가 등 사업에서 가점을 받고,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수출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농가는 표준화된 스마트팜과 계약재배 확대로 안정적인 원료공급망을 구축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하고, 기업 역시 안정적 원료수급망 확보와 체계적 통합정보시스템(공공형 CDMO)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신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전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글로벌 그린바이오산업의 대표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망기업 지원 등 그린바이오 생태계의 핵심동력이 될 2026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231억원)을 받아 국비(균특)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

전국규모 유소년 승마대회

순천시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풍덕수변공원 특설 경기장에서 ‘제1회 순천시장배 팔마 유소년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순천시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유소년 승마대회로 시민들이 평소 자주 찾는 수변공원에서 열려 승마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기 종목은 장애물, 권승, 거북이 달린다, 릴레이 등 총 5개 종목 8개 경기로 현재 참가자 모집 중에 있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중학생까지로 학생승마사업 참여 학생 등 관내 유소년에게 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 난이도를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전남)=양희성 기자 ysteven@

김해시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

김해시가 산림청의 ‘2025년 녹색도시 우수 사례 공모’에서 도시숲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버려진 철도 부지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바꾼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영역사공원, 폐철도 도시숲, 하모니숲, 맑은바람 생태길길, 스마트그린 도시숲, 도시바람길숲을 차례로 완성했다. 전체 6km 구간 가운데 아직 미조성된 2.3km는 2026년까지 도시바람길숲 2·3단계로 개발해 녹지 네트워크를 완성할 방침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금융중심지 활성화 도모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
예탁원 등 총 14개 기관 참여
정책방향, 발전방안 등 논의

부산시는 2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회의실에서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열리며,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을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등 금융 관련 유관기관을 포함해 총 14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는 ‘부산금융중심지 주요정책 성과 및 향후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해 참여기관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은 민선8기 들어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부산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등 부산형 3대 혁신 모펀드 조성을 주도했다. 아울러 부산디지털자산거점소 설립 지원 등으로 자본과 인재, 기술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국제금융센터지수 역대 최고인 24위를 기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 스타트업 윈스톱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부산청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경, 스타트업 윈스톱 지원센터 출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운영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부산창경)는 1일 부산창경에서 스타트업 윈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국 창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창업자의 고민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윈스톱 지원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지난 9월 발표한 새 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전국 규모 행사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전국 17개 창경 대표이사, 스타트업, 민간 협·단체, 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 17개 창경에서는 중앙과 화상으로 연결해 동시에 지역 자체 출범식을 진행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스타트업 윈스톱 지원센터는 법무·세무·특허·노무 등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 직업계고 순취업률 38.4% ‘전국 1위’

경북교육청 취업통계 발표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경북 직업계고가 순취업률 38.4%(전국 평균 25.6%)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매년 4월 1일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6년 연속 전국 최고 순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31.6%(전국 평균 49.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경북 직업계고가 ‘취업 중심 기능인 양성’이라는 교육 방향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온 결과로, 졸업 직후 산업 현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번 결과는 신산업·신기술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따라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한 점, 10차 산업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한 점, 경북형 도제사업을 통한 기업 맞춤형 취업 교육을 운영한 점,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으로 지자체 협력 모델을 구축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은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기능경기대회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현장 실무능력을 입증해 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영양군,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에 공동건의문 전달

영양군은 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에 참석해, 남북9축 고속도로(영천~양구) 조기 건설을 요청하는 10개 시·군 공동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소속 강원·경북 10개 시·군이 함께 마련한 자리로, 협의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건의문을 바탕으로 ‘제5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국가 고속도로망 중장기 계획)’에 남북9축을 중

점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내륙을 관통하는 국가 기간교통축이다.

강원·경북 10개 시·군은 2023년 7월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창립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강원내륙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착수(‘23.7.)와 경북권(영천·청송·영양·봉화) 사전타당성 조사 추가 착수(‘23.10.) 등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함양군

280억 규모 지역상품권 발행

함양군은 올해 총 280억원 규모의 함양사랑상품권을 발행,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는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도 눈에 띄는 수준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군은 올해 상품권 구매 시 기본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할인율을 15%로 대폭 높였다. 여기에 5% 캐시백 행사까지 더해 역대급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포럼’ 열어

경북도는 지난 1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해양수산부, 국내 주요 크루즈 선사, 관계기관, 학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일만항 북극항로 크루즈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사)한국크루즈포럼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북극항로와 해운 그리고 크루즈’를 주제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김준한 기자